



Wrong - Right ?

쏟아지는 불확실한 정보에 언론이 맞서는 법

위은지 동아일보 DX본부 전략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 밤. 가족, 친구 단체채팅방(단톡방)에 불안함이 가득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그중 하나는 사당역 인근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달리고 있는 장갑차 사진이었다. 사진을 공유한 친구는 “이런 사진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시점에 촬영된 건지, 혹은 과거 사진이거나 딥페이크(deepfake) 조작 사진인 건지 알 수 없었다. 사진의 진위를 다룬 기사도 찾을 수 없었다. 100% 신뢰할 순 없는 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허위 정보라고 단정 지을 근거도 부족했다. 실제로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고 있기도 했다. 사진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필자의 불안한 마음을 키우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장갑차 사진은 과거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고, 온갖 괴담이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휩쓴 뒤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빠르게 확인해 보도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

다는 걸 체감한 밤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허위 정보를 쉽게 만들어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허위 정보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허위 정보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난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정국에서도 언론은 다양한 허위 정보와의 전쟁을 벌였다. 과거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을 비춰볼 때 올해에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허위 및 조작 정보가 유통될 것이며, 특히 생성형 AI로 정교한 허위 정보가 생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 진영을 막론하고 상대측을 공격하는 허위 정보가 다수 유통됐다. 정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체인 '브라이트 라인 워치(Bright Line Watch)'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37%는 '7월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암살 시도 사건은 연출된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믿었다. 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80%는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허위 정보를 믿는다고 답했다.¹⁾

진영에 상관없이 수많은 허위 정보가 유통됐지만,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가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붉은 옷을 입고 시카고에서 열린 공산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듯한 가짜 이미지가 대표적이다.²⁾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그녀의 팬덤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³⁾

그나마 다행인 건 선거 운동 기간 유통된 가짜 이미지들은 실제와 매우 유사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류였다기보다 정치적 '밈'(meme)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존 위비(John Wihbey) 미국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학과 부교수는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종류의 딥페이크 콘텐츠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콘텐츠는 기존의 서사를 강화하고 보수 우파에 연대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1) Bright Line Watch. (2024.10). Wave 22 Public and Expert Survey Report. (Bright Line Watch). URL: <https://brightlinewatch.org/america-confronts-the-state-of-its-politics-in-2024>

2)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24.8). URL: <https://x.com/realDonaldTrump/status/1825138139502878806>

3) Robins-Early, N. (2024.8). Trump posts deepfakes of Swift, Harris and Musk in effort to shore up support. (The Guardian). URL: <https://www.theguardian.com/us-news/article/2024/aug/19/trump-ai-swift-harris-musk-deepfake-images>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⁴⁾

이러한 허위 정보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진 않다. 커드 크뉘퍼(Curd Knüpfer) 남덴마크대 정치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도 도이치벨레에 “전반적으로 비교적 정직한 선거운동이었다”며 “허위 정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평했다.⁵⁾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허위 정보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종종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망신 주는 방법으로 그것이 재밌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분석했다.⁶⁾

이들은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자 한다. 무엇이 사실인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 이른바 ‘거짓말쟁이의 배당금(liar’s dividend)’이다.

4) Steffen, S. (2024.11). Fact check: Disinformation’s impact on the US election. <Deutsche Welle>. URL: <https://www.dw.com/en/fact-check-what-role-did-disinformation-play-in-the-us-election/a-70729575>

5) Steffen, S. (2024.11). 앞의 글.

6) Oremus, W. (2024.7). False rumors about Vance, Musk’s X show misinfo cuts both ways. <The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4/07/26/jd-vance-couch-twitter-whitelist-fake>

거짓말쟁이 배당금이 늘어나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의도는 허위 정보를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대선 정국 음모론을 분석한 기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붕괴하면서 친구와 가족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의 출처가 됐다”며 “이는 직설적이고, 익숙한 용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Influencer)의 증가세와 들어맞는다”고 분석했다.⁷⁾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정치 유튜버(YouTuber)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은 허위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길 원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 주도로 사칭 뉴스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도플갱어’ 캠페인이 이를 통해 이득을 봤다. 최근 해당 캠페인 관련 내부 문건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캠페인에 큰 힘이 됐다고 한다.⁸⁾

언론에 불리한 허위 정보와의 전쟁

언론은 허위 정보를 검증하고 반박하는 데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2년 국제작가단체 ‘펜 아메리카(PEN America)’가 천여 명의 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허위 정보로 인해 기존의 저널리즘 관행을 하나 이상 바꿨다고 응답했다.⁹⁾ 예를 들어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맥락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고(응답자의 66%) ▲결정, 방법 및 출처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59%)하고 있다.

반면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팩트 체크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26%)거나 ▲‘가짜 뉴스’ 반발에 대한 걱정으로 특정 기사 작성을 피한다(17%)는 언론인들도 있었다. ‘펜 아메리카’에서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이끄는 팀 리차드슨(Tim Richardson) 전 <워싱턴포스트> 에디터는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되는 1분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발전을 보도하는 데 쓰

7) Ellison, S. (2024.11). Conspiracy theories shaped the 2024 election. <The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11/04/election-2024-conspiracy-theories>

8) Rid, T. (2024.9). “The Lies Russia Tells Itself”. <Foreign Affairs>. URL: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lies-russia-tells-itself>

9) Pen America. (2022.4). “Journalists and the Threat of Disinformation”. <Pen America>. URL: <https://pen.org/report/hard-news-journalists-and-the-threat-of-disinformation>

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¹⁰⁾

확인한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쓰느냐도 중요해졌다. J. D. 밴스(James David Vance) 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AP>통신의 팩트체크 보도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2024년 7월 소셜미디어 <X>에 한 익명의 사용자가 ‘밴스 후보가 본인의 책 ‘힐빌리의 노래’에서 소파와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농담 글을 올렸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이 주장은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AP>통신이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 헤드라인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사 제목은 “밴스 후보는 소파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였다. 온라인상에선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며 <AP>통신 기사를 비꼬았다. 정확히는, ‘밴스 후보가 그런 내용을 책에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야 했다. 논란이 일자 <AP>통신은 기사를 삭제했는데, 이것이 추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사가 삭제됐다는 건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냐”고 반응하기도 했다.

신중하지 못한 팩트체크는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언론이 허위 정보 검증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허위 정보를 다루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명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가 제안한 ‘사실 샌드위치(Truth Sandwich)’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레이코프는 ▲사실로 기사를 시작할 것 ▲기사 중간에 거짓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 ▲그 뒤 그 거짓말을 팩트 체크하고 사실을 반복할 것을 제안한다.¹¹⁾

‘우라카이’만 하는 기자는 사라져야 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¹²⁾

이 문장은 지금 언론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허위 정보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그걸 검증하는 건 까다롭다. 언론이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동안 어딘가에선 또 다른 허위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회수 확보 등을 위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정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옮겨 쓰는 기자가 아직

10) Richardson, T. (2024.10). “Journalists can’t win the fight against fake news without citizens’ help”. 《The Hill》. URL: <https://thehill.com/opinion/technology/4934231-journalism-disinformation-threats>

11) Sullivan, M. (2018.6). “Instead of Trump’s propaganda, how about a nice ‘truth sandwich’?”. 《The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instead-of-trumps-propaganda-how-about-a-nice-truth-sandwich/2018/06/15/80df8c36-70af-11e8-bf86-a2351b5ece99_story.html

12) 독일 나치 정권 괴벨스(J. Goebbels)가 한 말로 잘못 알려져 있다.

도 적지 않다. 이들은 단순히 질 낮은 기사를 양산하는 것, 그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독자가 뉴스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다른 한편에서 확인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처사다.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언론 윤리에 충실한 보도를 해야 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무력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를 신중하게 기사에 담아낼 때 거짓말쟁이가 얻는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